# 독도, 영유권 수호에 집중

## "명칭 복원, 日 분쟁화 전략 말려들 우려"

## 정부, 재외공관 오류 시정 담당관 지정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보다는 독도 영유권 수호에 외교력 등을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 암'이라고 써왔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독도표기 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어 "'리앙쿠르 암'으로 표기하는 것은 영유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명칭 표기를 바로잡기보다는 영유권 오류 시정에 외교력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미지정지역'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한국'과 '공해'로 복원된 직후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암'에서 '독도'로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한 달도 못돼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사항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명칭 복원문제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일본의 국제분쟁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 독도문제에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독도 영유권 및 명칭 표기와 관련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오류 시정에 나설 담당관을 두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또 독도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인 '해양법류기획과'의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美대선 승산, 오바마 46% 매케인 28% 지지율은 치열한 접전

제44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을 70여일 앞둔 가운데 현재 지지율에선 민주당 버락 오바마,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오바마가 승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매케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 그 추이를 발표하고 있는 라스무센리포트는 18일 여론조사 지지도에선 오바마가 44%, 매케인이 43%로 오바마가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라스무센리포트는 우호적인 견해를 가진 유권자까지 포함하더라도 지지도는 오바마가 47%로 매케인(46%)보다 역시 1%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오는 11월4일 본선에서 누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46%가 오바마를 꼽아 28%에 그친 매케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 6월 오바마가 민주당 경선 승리를 선언한 직후 실시한 조사에선 오바마의 승리 가능성이 한때 54%보다는 8% 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연합뉴스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8년 10개월만에 전격 사임한 뒤 반(反) 무샤라프 운동을 주도해온 변호사 등 시민들이 19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자의 퇴진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엔 식량기구 北 식량 지원 한국 등에 곧 요청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앞으로 7~10일 내 한국을 비롯한 식량 지원국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폴 리슬리 WFP 대변인이 밝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현재 북한에서 긴급구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공식 요청서의 세부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WFP는 내달부터 15개월간 620만명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5억8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긴급구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앙리 조세랑 식량정보국장은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을 300만~350만t으로 예상했다. 이는 FAO의 당초 예상량 570만t에 비해 200만t이나 줄어든 것이라고 RFA는 말했다. /연합뉴스

# 장관이 벙커에서 잠까지 자면서…

## 李 국방 을지연습 이례적 막후 지휘 눈길

이상희 국방장관이 한반도 방어태세 유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막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9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UFG 연습기간 한측합동군사령부(JFC)가 설치된 수방사 지하 벙커에서 잠을 자며 연습을 관찰하고 있다"면서 "국방장관이 을지연습 때 벙커에서 잠을 자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 장관은 국방부의 방위정책과를 중심으로 작성된 위기관리 상황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면서 "특히 수방사 벙커에서 오전 8시30분 진행되는 일일상황보고회의 때는 UFG 연습에 관한 조언이나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들은 국방장관이 연합훈련의 진행상황을 관찰하고 조언하는 것을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장관은 연합훈련 때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이 장관의 행보는 국가위기관리 대응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수장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령권(軍令權·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과 군정권을 가진 국방장관이 동시에 전쟁수행본부를 지키고 있는 것은 군령과 군정의 조화를 의미한다"면서도 "그러나 군정권의 강화로 자칫 군령권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 차기 대통령·법관 복직 등 논의

## 파키스탄 연정, 무샤라프 대통령 사임 후속 대책 착수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낸 파키스탄 집권연정이 대통령 사임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집권연정을 주도하는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인민당(PPP) 의장과 제2당인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을 주도하는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 등은 19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 대통령 사임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통령 사임 이후 정국인 안갯속인 가운데 연정은 사임한 무샤라프 대통령의 처리 문제와 무샤라프에 의해 축출됐던 법관들의 복직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 이슈는 자르다리와 샤리프 두 연정 지도자가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향후 집권연정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우선 대통령 처리 문제와 관련 샤리프측은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르다리 측은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현지 일간 '돈(Dawn)'이 전했다.

또 해직 판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샤리프는 즉각적인 복직을 원하는 반면 자르다리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이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연정은 이날 회합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앉힐 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와 관련 현지 지오(Geo) TV는 여권 소식통을 인용해 연정 지도자들이 이날 중으로 판사 복직 문제를 매듭짓고 차기 대통령 후보도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무샤라프 英 망명 계획"

최근 사임을 발표한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영국으로 망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파키스탄에 있는 한 서방 고위외교관의 말을 인용, 무샤라프 대통령이 사임 후 성지 순례를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로 향할 것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런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美, 25일 北 테러지원국 해제"

## 자유아시아방송 보도…美 국무부는 부인

미국이 이르면 오는 25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미국과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RFA는 이러한 관측 배경에 대해 '워싱턴의 일본 전문가'는 해제 시한인 11일을 2주일 넘긴 25일까지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 맺은 여러 합의를 모두 뒤엎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미국측 관계자로부터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가) 들었기 때문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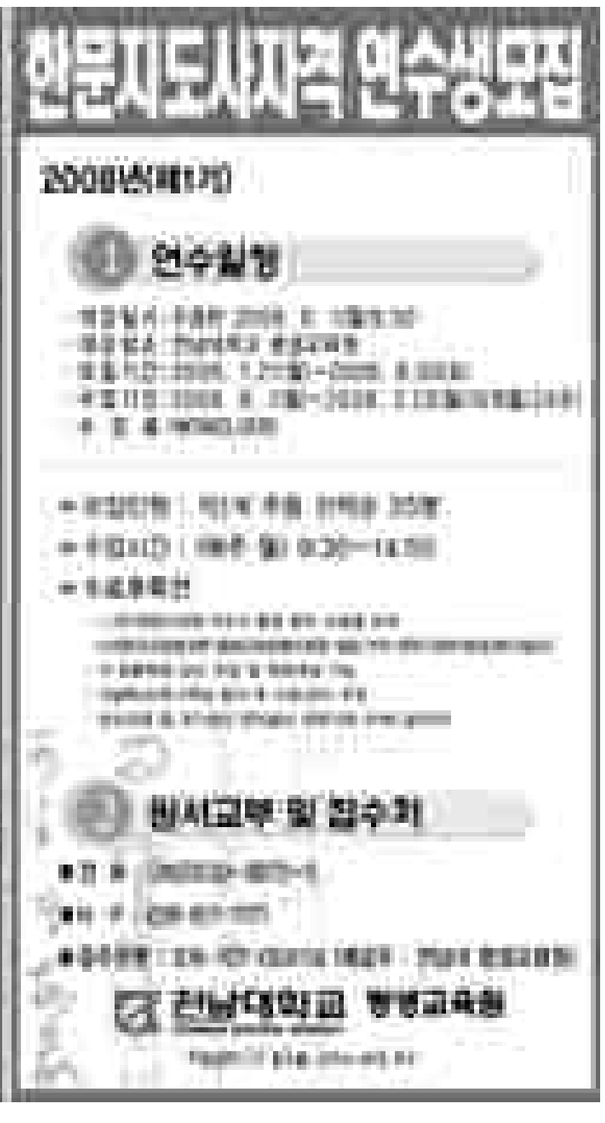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18일 이와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들은 바 없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검증체계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밝혔다고 RFA는 소개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가 이제 미국 의회나 행정부의 관심권 밖이며 대선에서도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을 지금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다른 북한 전문가들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핵문제에서 서서히 빠지고 성 김 전 한국과장이 특사로 북한 문제를 전담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북한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북한 성 김 특사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지 못하는 등 대북 협상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 러시아-그루지야 전쟁포로 교환 시작

그루지야 국가안보회의 알렉산더 로마이어 의장은 19일 러시아와의 전쟁 포로 교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러시아 군 헬리콥터 2대가 그루지야 이고에티에 착륙, 이곳에서 내린 2명이 들것에 실려 그루지야 당국자에게 인계됐으며 이후 바퀴가 달린 들것에 탄 사람 등 다른 2명이 그루지야 앰뷸런스 2대에서 러시아 헬레콥터로 이송됐다.

로마이어 의장은 이것이 이달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붙잡혔던 포로를 교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